

# 1930년대 시문학의 장(場)과 여성시의 한 방향\*

- 모운숙 초기시 『빛나는 지역』(1933)을 중심으로

김진희(이화여대)

## < 목 차 >

- |                          |                      |
|--------------------------|----------------------|
| 1. 1930년대 시문학사와 여성시인의 위상 | 의 젠더화                |
| 2. 시단(詩壇)의 주요 경향과 감상성    | 3. 민족구원의 의지와 ‘남’의 시학 |
|                          | 4. 식민지 여성시인으로서의 정체성  |

## 1. 1930년대 시문학사와 여성시인의 위상

1930년대는 한국시문학사에서 시적 기법의 현대화, 주제의식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현대시학을 정립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발표 매체의 확장과 시인 등용문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경향의 시인들이 시단에 대거 진출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의 학예면은 물론 문예지나 동인지 등을 통해 시를 발표할 수 있었다. 또한 신문의 신춘문예제도의 정착과 잡지의 신인추천제도 등을 통해 많은 시인들이 문단에 등장했다.<sup>1)</sup> 또한 이념주의 문학이 중심이었던 1920년대와는 달리 문학의 자율성과 언어예술로서의 시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시단에 나타났다. 20년대 카프계열의 작가들이 꾸준히 창작 및 비평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구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스트들, 그리고 박용철을 중심으로 하는 시문학과 등이 서로 일정한 영향을 주면서 문학의 장(場)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L0015)

1)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154-158면.

형성하였으며, 현대시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정립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단의 움직임에 고려할 때 1930년대 초반은 시문학사에서 역동적으로 현대시와 시론을 모색해 간 중요한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잘 알려진 정지용, 김기림, 박용철, 김영랑, 이상 등은 1930년대 초에 이런 움직임을 주도한 중요한 시인이자 평론가이기도 하다.

여성시인인 모운숙과 노천명 역시 이런 문단의 장(場)안에서 시작(詩作)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시문학사의 주요 여성시인인 이들이 갖는 당대 문단의 장(場)안에서의 위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특히 ‘조선이 가진 하나뿐인 여류시인’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등장한 모운숙은 1930년대 시단에서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이런 설명은 과장이기보다는 당대 문단의 여성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즉 모운숙 이전에도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등의 여성시인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시만을 창작하는 작가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시인이라고 지칭하기에 주저했을 것이며, 시적 역량의 면에서 모운숙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sup>3)</sup>

모운숙은 이화여전의 교지 『梨花』 창간호에서부터 시와 논설을 쓴 물론, 이후 『三千里』, 『新東亞』, 『新生』 등에 차례로 작품을 실고, 이후에는 『詩苑』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들을 발표한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1933년 첫 시집인 『빛나는 지역』에 무려 105편의 작품을 수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모운숙은 전대의 선배 여성시인들에 비하면 작가로서의 역량이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모운숙의 등장은 남성 작가들의 관심은 물론, 전 문단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 최초의 여류시인이라는 문단의 주목과는 달리 문단 등단 초창기에 관한 평가는 30년대 후반의 친일시 창작과 친일활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런 연구의 경향은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행보를 밝히고 이를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정체성은 물론 근대문학의 역사성을 찾는 것이 한국문학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운숙의 경우 1930년대 시단에 등단한 여성시인으로서 갖는 정체성과 위상의 문제는 30년대 후반 친일의 문제와는 또 다른

2) 모운숙에 관하여 김기림, 박용철, 임화, 최재서, 백철, 양주동 등 평단의 주요한 논자들이 평을 쓰는 것을 보면 모운숙의 등장은 일종의 문단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3) 김용직, 『한국현대시인연구』, 서울대출판부, 2000, 612-613면.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즉 1930년대 초 현대시의 정체성을 정립하려 했던 움직임 안에서 모운숙 시인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역시 고려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sup>4)</sup> 이런 의미에서 30년대 초반 작품들을 단지 30년대 후반 친일시를 예비했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당대 문학의 장(場) 안에서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갖는지 규명하는 것이 모운숙 시인의 시세계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여성 시인을 포함하는 1930년대 시단 전체의 지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sup>5)</sup>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당대 문단의 비평을 통해 모운숙이라는 여성 시인, 또 그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한편 모운숙 시인 개인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가 고찰해보려 한다. 이런 논의의 과정을 통해 친일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1930년대 시단에서 모운숙 시인의 위상을 재고하고 나아가 초기 작품의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연구하기 위해 부르디외의 ‘문학의 장(場)’개념을 원용하고, 젠더적 시각을 도입하려 한다. 문학작품의 생산과 수용의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면서 사회적 특정 상황 속에서 창조자로서 작가와 작품의 개별성을 부각시키는<sup>6)</sup> 이 개념은 자신들의 문학론을 내세우는 집단들이 그것을 상징적 권력으로 삼아 논쟁하는 양상을 보이는 1930년대 적절한 개념이다. 이때 젠더는 비평가들의 문학론에 내재하는 이데올로기로 성적 차이에 따른 차별과 배제의 권력을 만드는 동인이다. 부르디외는 사회공간의 하위공간으로써 장(champ - 학술적으로 界, 野 등의 의미)을

4) 이런 작업이 모운숙 시인의 친일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930년대 후반 친일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 초반 여성시인으로서의 문학사적 위상을 탐구하는 것 역시 근대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5) 최근까지 모운숙 시의 전반적인 작품 경향을 아우르며 종합적으로 시세계와 시인을 연구한 논저는 거의 없다. 송영순, 『모운숙 시 연구』(국학자료원, 1997)가 모운숙 시세계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1930년대 남성 작가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함에 비해 여성작가의 자료가 희소함을 알 수 있다.

6) Pierre Bourdieu, 『예술의 규칙-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하태환 옮김, 동문선, 1999, 284- 295면.

설정하는데, 문학의 장(champ) 역시 문학작품의 생산과 수용의 사회적 조건을 살피기 위한 개념으로 작가의 창작 활동은 이런 장(場)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육, 학습,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 자신의 개별적인 성향(Habitus)에 따라 그만의 독특한 실천이 생산된다. 부르디외는 문학의 장(場)과 개인적 성향이라는 두 요소가 서로 반항하면서 문학 생산의 성격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시인이 놓인 문단의 구체적 상황과 여성시인에 대한 비평의 양상을 살피면서 여성 시인의 창작의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

## 2. 시단(詩壇)의 주요 경향과 감상성의 젠더화

언급했듯 1930년대 들어서면서 문단은 다양한 흐름으로 분화, 발전한다. 시문학의 경우 20년대 문단의 중심이었던 리얼리즘 시인들이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원숙하면서도 내면성 있는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젊은 시인 및 비평가의 현대적 시학 탐구가 진행되었고 언어와 순수에 집중하는 시문학과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리얼리즘, 모더니즘, 시문학파 등의 이름으로 불린 이 흐름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시단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현대시의 정체성을 모색해 나간 것으로 평가받는다.<sup>7)</sup>

그렇다면 주요한 시단의 흐름 안에서 모운숙 시의 위상은 어떠했을까. 이를 위해 당대 주요 비평의 흐름과 그 안에서의 평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sup>8)</sup> 잘 알려져 있듯이 김기림은 1930년대 현대적 시학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주요한

7) 오세영 외(2007) 156-159면. 현대시학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들 세 경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한편 이외에도 이광수, 양주동 등의 민족주의 문학 계열, 이하운, 김진섭 등의 해외문학과 등이 함께 근대 문학의 장(場)을 구성하고 있었다.

8) 1920년대 민족주의파의 문학이 문단적으로 모운숙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논의도 있는데, (송영순(1999), 94면) 1920년대는 습작기간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의 강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등단 이후, 문단의 다양한 잡지와 유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1930년대 다양한 문학의 흐름을 모운숙 시인이 의식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모더니즘 비평가와 시인이다. 그는 모더니즘 시론을 자신의 시 창작에도 반영하고 모더니즘 시인들의 작품을 분석, 평가할 때도 구체화시켰다. 실제 그는 모더니즘 단체 ‘구인회’를 통해 모더니즘 시론을 적용, 확산 시키고자 했는데, 새로운 문학을 위한 ‘간판’의 의미로 구인회가 작용하길 바랐으며, ‘낡은 진실’인 기성문학과 모더니즘의 경계선에 구인회가 존재하길 희망했다.<sup>9)</sup> 따라서 실제적으로 회원들의 작품을 서로 동인들이 옹호해줌으로써 이들의 작품이 문단에 확산되고, 이들이 문단의 중심에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작년에 조직체로서 모더니즘 문예가들을 중심으로 구인회도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김기림씨의 詩類를 꽤 높이 평가하고 또 정지용씨의 시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가치를 주었습니다. 다만 정지용씨가 山藏之玉같이, 김기림씨가 비약적 발전한 것 같이 새삼스럽게 基價가 발휘된 그 물질적 근거가 어데 있겠습니까.<sup>10)</sup>

위의 인용문은 당대 카프 문학 비평가인 권환이 모더니즘의 약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그는 모더니즘 문학인들이 서로의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줌으로써 문단에 모더니즘을 알리고 있으며, 한편의 문단 현실의 객관적 정세로 인해 모더니즘이 발전할 것이며, 문단의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시문학에서 김기림은 정지용을 ‘최초의 모더니스트’라고 찬사했는데, 김기림이 정지용의 시를 해석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모더니즘 시와 모더니즘 시론의 문단 확산이 실현된다.<sup>11)</sup>

당대 문단에서 현대적 문학의 흐름을 선도한 지식인으로서 김기림의 위상은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모운숙에 대한 김기림의 비평은 문단 전체의 평가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12)</sup>

감상의 절제를 내세우는 김기림은 모운숙의 시집이 출간된 이후 비교적 상세한

9) 김기림, 「문예인의 새해 선언 - 씨클을 선명히 하자」, 《조선일보》, 1933.1.4.

10) 권환, 「33년 문예평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중앙일보》, 1934, 1.14.

11) 서준섭, 『한국모더니즘 문학연구』, 일지사, 1988, 115면.

12) 김기림이 언급한 감상성의 문제가 다른 비평가들에게서도 비판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서평<sup>13)</sup>에서부터 간단한 언급까지 몇 번에 걸쳐 시와 시인에 관해 언급한다. 《조선일보》에 상재한 평문에서는 날짜는 다르지만 같은 시리즈를 통해 두 번이나 시집에 관한 평가를 언급하기도 했다.<sup>14)</sup>

그것은 검은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밤일는지도 모른다. 그 하늘에 둥근 보름달 달고 병들어 여즈러진 새파란 그믐달이 떠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시인 모운숙시의 시가 느껴 울기에 좋은 밤이다. 끝없는 孤寂 - 향토를 사랑하는 순정 - 병든 청춘의 嘯啼 - 그리고 까닭 모르는 젊은 때의 눈물 - 방랑하는 영혼 - 이것들은 시인 모운숙시의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엘리먼트'이다. 이러한 지극히 감상적인 망국적인 정조에 물든 세계에서 이 시인의 섬세한 어떤 때는 아주 야생적인 '리리시즘'이 슬픈 피리 소리와 같이 가늘게 떨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모운숙의 시집에 관한 서평 「毛允淑씨의 '리리시즘' - 시집 「빛나는 地域」을 읽고」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김기림이 이 서평의 시작을 상당히 감상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운숙의 시가 느껴 울기 좋은 밤이다'라며 지성적이고 냉철한 평자가 평문의 앞 부분을 감상적인 수필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느낌을 비유적으로 쓴 문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가 지목하고 있는 모운숙 시의 주요 요소들인, '孤寂', '눈물', '병든 청춘', '방랑', '눈물' 등은 모운숙의 시가 김기림이 문제시하는 '감상주의'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모운숙의 리리시즘이 어떤 때는 섬세하지만, 야생적이라는 평가는 자신의 감성과 정서의 절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시(제작이.필요한 작품으로서)는 애매성과 감성성을 배제함으로써 명량성에도 달할 수가 있다. 그것은 시인의 꾸준한 지적 활동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중략) 시를 감정에 맡겨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감정은 늘 비뚤하려고 하고 비만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 감정의 비만이 다시 말하면 감상이다. 시를 이러한 비대증에서 건져내서 그것에게 스파르타 인과 같은 건강한 육체를 부여하는 것이

13) 김기림, 毛允淑씨의 '리리시즘' - 시집 「빛나는 地域」을 읽고, 《조선일보》, 1933, 10,29-30.

14) 김기림, 「1933년의 시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33. 12.7-13.

오늘 시인의 임무다. 15)

위의 인용문에 드러난 것처럼 김기림이 저술한 일련의 모더니즘론을 고찰해보면 ‘센티멘탈리즘’에 대한 비판이 중심을 이루면서, 모더니즘의 타자로서 감상주의가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기림은 당대 센티멘탈리즘이 시인의 주관적 감상과 자연의 풍물만을 노래하면서 문명의 형태와 성격, 또 사람들의 심정에 일으키는 상이한 정서에 대해서 완전한 불감증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는 “센티멘탈리즘은 예술을 부정하는 한 개의 허무다”<sup>16)</sup> 혹은 망국적인 감상주의<sup>17)</sup>라는 극단적 평가를 서슴치 않으면서 근대문학의 정립에 센티멘탈리즘이 문제적인 경향임을 강조하며 감상과 대비되는 ‘지성’을 강조한다. 근대적인 것, 근대문학이 갖추어야 할 것이 지성임을 강조하는 이런 맥락에서 김기림은 모운숙의 시가 갖는 전근대성을 비판하고 있다.

김기림이 모운숙의 시에서 감상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박용철은 반박하면서 감상성이 모운숙 시의 특성이요, 장점이라고 설명한다.<sup>18)</sup>

이 한편의 시집 가운데는 약간의 소재가 있을 뿐이요 한편의 완성된 시도 없다고까지 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이 시인의 장점은 그 황홀난측한 시경 자체에 있는 것 같다. 그의 황홀난측한 사상과 표현, 또는 그의 감상성을 버리라는 것은 그의 시의 자살을 권하는 것과 같다. 열편을 뽑아냈으면 촉망받는 시인이 되기에 부끄럽지 않을 걸 백편을 모아냈기 때문에 읽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집이 되고 말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시집 편찬의 기술문제요 시 그것의 문제는 아니다.<sup>19)</sup>

15) 김기림, 「현대시의 肉感- 감상과 명량성에 대하여」, 『詩苑』, 1권 2호, 1935. 4

16) 김기림, 「1933년의 시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33. 12.7-13.

17) 김기림, 「포에시와 모더니티」, 『신동아』, 3권 7호, 1933. 7.

18) 송영순은 모운숙의 시가 갖는 센티멘탈리즘에 관해 김기림은 부정적인 평가를, 박용철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송영순(1997), 16-19면.) 본고 역시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있으나 박용철이 센티멘탈리즘을 모운숙 시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정결과 감정의 직설적 표현, 감정의 자연스러운 유출이 만드는, 정신적 경지의 전제라는 의미이며, 김기림이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감정이 지성의 힘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엄밀히 보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박용철은 시문학과와 토대를 놓은 시인이자 평론가, 번역가이다. 그가 창간한 순수시 전문지 『詩文學』은 한국 현대시의 언어 탐구와 미학의 창조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김영랑, 정지용, 신석정 등의 시를 통해 언어의 아름다움과 시인의 창조적 기질 등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우리는 시를 살로 색이고 피로 쓰듯 쓰고야 만다. 우리의 시는 우리 살과 피의 땀함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시는 지나는 걸음에 슬쩍 읽어치워지기를 바라지 못하고 우리의 시는 열 번 스무번 되씹어 읽고 외여지기를 바랄 뿐 가슴에 느낌이 있을 때 절로 읊어나오고 읊으면 느낌이 일어나야만 한다.<sup>20)</sup>

박용철은 시가 감정의 자연스런 발로라는 워즈워드의 말을 인용하지만, 감정 그 자체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는 강렬한 감정의 응집과 구체화를 중요시 했으며, 이런 점에서 감정과 언어를 종합하는 높은 차원의 정신성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박용철은 좋은 시를 절정의 순간이나 그 상태의 확보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박용철은 모운숙의 시 작품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황홀난측한 시의 경지’ 즉 높은 정신성의 경지를 느낀 것인데, 모운숙 시인의 특성인 정열과 감정의 직설적 표현이 박용철에게 살과 피의 땀함, 감정의 자연스러운 유출로 느껴졌으며, 이를 통해 강렬한 주제의식이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박용철이 주장하는 황홀난측한 순간은 김기림이 지적하는, 절제 없는 감상성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높은 정신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상의 무제한적 방출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용철이 ‘열편을 뿔었으면 좋았을 작품’이라는 뜻은 감정이나 감상성이 시의 피와 살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언어의 아름다움과 창조성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작품이 많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감정이나 감상이 잘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박용철이 모운숙의 시가 미숙한 것이 문제이지 감상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시인이 대상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과 감상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즉 언어의

19) 박용철, 「여류시단총평」, 『신가정』, 1934.12.

20) 박용철, 『시문학』 창간호, 편집후기, 1930.3.

절제를 중시하고, 지성의 통제를 중시하는 현대적인 시학의 관점에서 모운숙의 시는 감정의 표현이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었다.

이처럼 여성시인의 특성으로 감상성이라는 수식어가 여성시인으로서의 위상과 관련된 평단의 주요 관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리얼리즘 비평 역시 모운숙 시의 감상주의를 문제 삼는다.

모운숙에 있어서는 그의 『동인』 지에 실린 것과 같은 아무 향기도 없는 안가의 감상주의만이 지배하고 있을 따름이다. 최근 그의 시집 『빛나는 지역』에서 받은 속임없는 감상을 말하면 또 그것은 옛날 예배당에서 주던 졸렬한 종교화 쪽지 같은 인상 이상 더 무엇을 찾을 수 없다. 현실성 없는 허구의 사상과 빈약한 상상력을 가지고 불필요한 수사로써 장식하려는 것이 그의 시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곳에 따르는 안가의 감상주의! 이러한 것이 사람의 가슴을 때리고 고전주의 시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높은 예술적 향기를 전하는 시가가 되지 못하는 스스로 명확한 일이다.<sup>21)</sup>

비교적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임화의 논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안가의 감상주의, 둘째 허구적 현실성, 셋째 기독교적 색채 등이다. 임화의 논지는 박용철이나 김기림에 비해 여성시인에 대한 젠더적 시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감상주의 앞에 ‘안가(安家)라고 하는 여성 공간어를 씌으로써 감상성을 여성적인 것으로 고정화한다. 그러다 보니 안채의 여성이 바라보는 현실의 문제의식이 비현실적이고, 허구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시작품에 드러난 종교적 소재나 주제 의식 역시 맹목과 감상의 구실로 작용한다.

시는 감정에 의하여서만 노래되고 감정을 통해서만 독자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두개의 이유에 의하는 것으로 하나는 감정, 정서와 더불어 理智를 가지고 있고 이 양자로서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며 감정이란 동물에 있는 것과 같은 온전한 생물적 본능에 의한 발현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사유와 지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2)</sup>

21) 임화, 「1933년 조선 문학의 제 경향과 전망」, 《조선일보》, 1934, 1, 7.

22) 임화, 「기교파와 조선시단」, 『중앙』, 1936, 2

앞서 제시한 인용문과 함께 임화의 논지를 이해하면 모운숙 시에 나타나는 감상은 지적인 통제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김기림의 ‘지성’, 임화의 ‘사유’와 ‘지성’은 모두 감상성의 대타적 의미로 사용된 개념으로 당대 근대문학의 주요 개념이기도 하다.

이처럼 당대 문단을 이끈 주요 평자들의 관점에서는 모운숙 시의 감상이 비평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김기림은 여성시인이라는 특수성, 즉 여성 시인의 감상성과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여성시인에 관한 편견<sup>23)</sup>이 모운숙을 과잉칭찬하거나 과잉비판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당대 여성 시인의 위상이 감상성과 직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sup>24)</sup>

모운숙의 처녀시집『빛나는 지역』(1934) 1권에는 지방적인 정열이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넘치다 싶이 흘렀다. 쏟아지는 정열에 대하여 붓을 멈추고 그 정열의 물결이 한 무릎 지날 때까지 쓰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감정을 개방하고 그 정열에 몸을 맡기고 또 그 감정을 과장까지 하였다. 그 표현이 華麗盛裝에 흐른 것은 그가 감정을 과장한 일증거가 되리라. 결국 센터멘탈리즘의 과잉이 이 시인의 일장점도 되고 결점도 되었다.<sup>25)</sup>

영운은 오히려 시기를 잘못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소박성과 진실성만을

23) 1920년대 들어 사회 문화적으로 남녀의 육체에 대한 담론과 성, 심리 등에 대한 관심 속에서 남녀의 감정을 성별화하는 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부녀자가 성격 상 이성보다 감정이 우세하다든가, 여성이 남성보다 심(心)적으로 떨어진다 등의 평가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는데 이런 관점을 과학적으로 승인하는 작업 역시 이루어졌다. 문화적으로는 1920년대 감상주의가 남·녀 대중 모두의 취향이었는데도 감상주의의 성별에 여성성이 부여되는 것과 동시에 대중적, 통속적 가치로 전락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여성성, 감상이 중심 문화의 주변, 하위문화, 대중문화의 속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승식, 심리학 상으로 본 여자, 『신여성』, 1926, 4권 7호, 성동학인, 우리들은 어떤 소설을 읽을까, 《동아일보》, 1928, 2,11, 박숙자, 근대문학의 형성과 감정론, 『어문연구』, 제 3호, 2006, 박지영, 1920년대 ‘책광교’를 통해서 본 베스트셀러의 운명, 『대동문화연구』, 제 53집, 2006, 참고.)

24) 김기림, 毛允淑씨의 ‘리리시즘’ - 시집 『빛나는 지역』을 읽고, 《조선일보》, 1933, 10,29-30.

25) 백철, 『조선 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7, 341면.

귀중히 여기는 시절이 아니고, 더구나 그런 것을 존중하는 춘원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면 영운은 자기 성미에 맞는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여류문학의 여명기에 정말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시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시가 산문보다 덜 정열적이고, 덜 낭만적임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sup>26)</sup>

백철 역시 센터멘탈리즘이 모운숙에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감정을 개방하고, 정열에 몸을 맞기는 감상이 모운숙의 장점이자, 그의 기질에 맞는 시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평가는 감상주의를 여성, 그리고 여성의 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젠더적 관념을 환기시킨다.<sup>27)</sup>

이와 같은 평가를 종합해 보면 당대의 주요 평단이 보인 모운숙에 대한 관심은 상당한 것이었으나 그 내용은 주로 감상주의 비판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초 시단에서 감정의 절제의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이며<sup>28)</sup> 또한 감상성이라는 것이 고급 감정이 아니라 저급한 감정으로 평가절하되어 가는 문화적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문단의 마이너리티(minority)인 여성시인의 감성적 특수성은 당대 남성 작가와 다른 '차이'가 아니라 문체적 현상으로 '차별'적인 평가를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모운숙 시인에 대한 평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대 시단의 주요한 흐름의 주변부에 위치한 모운숙 시인의 시적 개성은 어떤 것이었는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26) 정태용, 「모운숙론」, 『현대문학』, 1967, 5.

27)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학장르에 일종의 젠더화가 이루어지는데, 여성과 친연한 장르로 수필이 거론되거나, 여성시를 곧 서정시로 인식하는 등의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여성작가의 정체성이 계속 문단의 시비거리로 등장했다. 최정희, 1933년도 여류문단 총평, 『신가정』, 1934.12, 박용철, 「여류시단 총평」, 『신가정』, 1934.12.

28) 1920년대 카프 문학은 물론 20년대 백조, 폐허 등 낭만주의 계열의 시작품들이 보인 감정 과잉이나 직설적 표현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1930년대 시단의 주요 목표이기도 했다.

### 3. 민족 구원의 의지와 ‘남’의 시학

소박성과 진실성, 민족과 국가를 강조하는 춘원의 영향이 모운숙 시의 개성을 없앴다는 기존의 평가는 모운숙의 시세계가 이광수의 문학관에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sup>29)</sup> 이처럼 춘원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면 자기 개성에 맞는 시를 썼을 것이라는 평가<sup>30)</sup>의 근거에는 모운숙 시세계에 이광수의 영향력이 컸다는 판단이 존재한다. 이런 평가는 1930년대 당대나 후대의 연구자들이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배의 영향 하에 놓임으로써 개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는 후배 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을 폄하한 것이며 나아가 이런 평가의 방식은 여성시인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sup>31)</sup>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논의들은 모운숙의 1930년대 초반 시를 평가 절하하는 데 기여했다.

모운숙을 춘원의 절대적 영향권 아래 평가하는 것은 시인으로서의 여성 작가를 아마추어나 혹은 문학소녀 정도로 여기던 1920-30년대 문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sup>32)</sup> 이런 문단적 현실이기에 김기림은 모운숙에게 “시인이 그의 예술에 대하여 오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회적 세력에 의지하여 그의 예술을 키워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에게 대하여 큰 불만을 느낀다. 그것은 또한 문학의 젊은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치욕에 해당하는 풍속이다.” 라며 춘원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비평을 서슴치 않게 된다.<sup>33)</sup> 김기림의 지적이 원론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등단한 시인에게 이런 비판은 모욕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모운숙의 시가 민족에 대한 사랑, 부재하는 주권에 대한 염원과 시적 자아의

29) 송영순(1997), 102면.

30) 정태용(1967), 앞의 글.

31) 왜냐하면 춘원을 통해 모운숙이 성공했다는 식의 평가가 1930년대에도 공공연히 있었고, 전반적으로 여성작가들의 역량을 의문시하는 것이 당대의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32) 이석훈, 문학소녀, 『신여성』, 7권 5호, 1933, 5.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 문단’, 『상허학보』 제13집, 2004, 8.

33) 김기림, 「여류문인 편감 총평」, 『신가정』, 2권 2호, 1934, 2.

현신을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평단에서 이런 시의 특성보다 주로 감상성을 비평의 핵심으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당대나 현재에도 민족이나 국가에 관한 관념과 주제의식이 춘원으로부터 온 것이고,<sup>34)</sup> 그것이 모운숙의 성미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영역은 집안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의 관심의 영역은 가정, 가족으로 국한된다. 이런 젠더적 위계는 식민지 하에서 더욱 견고해지는데 근대화에 따른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의 분리, 남성과 여성을 분리 하는 제도적 장치의 형성 등이 이에 기여했다. 특히 1930년대 들어 전업주부상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으면서<sup>35)</sup> 여성의 생활공간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분할되고, 그 공간의 성격 역시 여성적이고 감상적인 것으로 젠더화된다. 이런 변화에 따라 공적 영역, 즉 국가와 민족 등의 담론은 남성의 영역이고, 연애, 사랑, 꿈, 감상 등 잡다한 일상의 영역 등이 대중문화와 결합하면서 여성의 영역으로 배치된다.<sup>36)</sup> 이러한 당대의 문화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평자들은 모운숙의 시와 감상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연관시키며 비평할 수 있었다. 평자마다 감상의 절제나 혹은 과잉이나의 차이가 있을 뿐 감상 그 자체로부터 모운숙 시인은 자유롭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대로 나는 연필로 만년필로 기록하는 것이다. 까다로운 시인들의 글귀는 골라 쓰는 문구에 질리는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그 시인의 얼굴이나 혼의 모습을 못드러내고 마는 것이 아쉽기도 했다.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은 외엔 아무 욕망도 없었다.”<sup>37)</sup>는 모운숙의 고백을 헤아려 보면 당대 모더니즘 문단에서 추구하는 기교나 언어 수사를 의식하면서 거리두기를 했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모운숙은 최대한 인간의 혼을 드러내고 싶었으며 그것을 직설적 표현과

34) 모운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춘원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최근의 한 연구는 인도의 여성 시인이자 정치가인 나이두의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나이두와의 영향관계를 논의하고 있는 이 글은 춘원으로부터의 정신적 영향이 추상적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허혜정, 「모운숙의 초기시의 출처, 『현대문학의 연구』33호, 2007.

35)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 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336면.

36)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 심진경 옮김, 거름, 1998, 186면.

37) 모운숙, 『영운 모운숙 전집6』, 지소림, 1978, 117면.

거침없는 감정의 표출을 통해 추구했으나, 당대 주요 평단의 안에서 이는 감상성이 라는 평가의 근거가 되었으며, 오히려 민족적 현실에 대한 노래로서의 특성은 주요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시문학에서 민족과 국가의 노래는 남성의 노래이며 사랑과 슬픔의 노래는 여성의 노래라는 전제가 읽힌다. 그러나 모운숙의 작품은 당대 이런 문화적 분위기가 여성 시인에게 기대하던 바를 뒤집고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노래했다. 이런 시 작품 탄생의 배면에는 모운숙의 개인적 성향(Habitus)이 있었는데, 즉 가정적 환경과 교육<sup>38)</sup>에 의한 민족의식의 강화와 개인적 결의 등이 놓여 있다.

잔다르크의 분신처럼 되었던 그날의 학생 배우들은 총독부 박해가 심해오는 때였기에 아 나라 처녀들의 말 못할 울분이 상관도 없는 영국을 향하여 잔다르크와 함께 울부짖고 싸우는 기분으로 불운에 빠진 불란서를 제 나라처럼 여겨 만세를 부르며 극성을 부렸던 것이다.<sup>39)</sup>

인도와 정의에 입각하여 똑바른 현실을 해부하고 향상시킬 뜨거운 시를 써서 세상에 바치어 보겠다는 의지의 힘이 그때에는 굳어졌습니다. ‘나는 시를 쓰다 죽으리라’하는 간단한 결심이 가슴에 꼭 박히게 되었지요. 모든 사람의 고민을 내 고민으로 알고 표현해보리라는 마음의 작정만은 건설했지요.<sup>40)</sup>

위의 인용문은 이화여전 3학년 때 잔다르크 연극을 하며 조선의 독립을 상상하며 울부짖던 경험을 회상한 글이다. 민족 독립에 대한 염원이 어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운숙은 ‘말 못할 울분’에 고통받는 민족의 고민을 자신의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시로 쓰리라 다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운숙의 시가 시인 내면으로

38) 독립운동을 하던 아버지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민족주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호수돈 여고와 이화여전을 거치면서 종교적 가르침이 일체의 불의에 대한 저항적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모운숙은 간도로 독립 군자금을 나르기도 하였다. 송영순(1999), 85-107면. 아버지는 일본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으면 문을 꼭 닫고 하늘도 쳐다보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모운숙은 기억하고 있다. 모운숙(1978), 119면.

39) 모운숙(1978), 103-104면.

40) 모운숙, 「어떻게 난 시인이 되었나」, 『신가정』, 1936.3.

향한다기보다 사회와 현실로 열려진 작품이라는 사실, 즉 모운숙의 시가 인생과 사물에 내재하는 의미를 깊이 파고들기보다 상황과 현실에 직접적으로 부딪치며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외발적 성향’이 있다는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sup>41)</sup>

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지요  
금띠로 장식한 치마가 없어도  
진주로 꿰맨 목도리가 없어도  
님이 오라시면 가지요

(중략)

죽음으로 삶을 길이 있다면 죽지요  
빈손으로 님의 앞을 지나다니오  
내님의 원이라면 이 생명을 아끼리오  
이 심장의 온 피를 다아 빼어 바치리다

「이 생명을 부분

이처럼 민족적 현실의 위기에 뜨거운 시를 세상에 바치겠다는 모운숙 시인의 각오는 ‘님’으로 표상된 민족 혹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맹세로 드러난다. 님이 부르면, 오라면 달려가겠다는 시인의 태도는 간명하고도 의지적이다. “~없어도 하겠다”라는 문형은 시인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특히 없는 대상이 ‘금띠로 장식한 치마’, ‘진주로 꿰맨 목도리’ 등 여성적 물품들인데, 이것이 없어도 무엇이든 하겠다는 진술은 전통적인 혹은 일반적인 여성상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런 각오를 통해 시인은 ‘님’이라는 민족 혹은 국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작가의 인격과 교양의 수준이 높아야 함을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다.

41) 김용직(2000), 612-615면.

나는 결코 문인이나 시인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나 자신의 재능보다는 훨씬 우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단정했다<sup>42)</sup>

인류라든지 사회를 향상할 작품을 써야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먼저 작가의 교양정도가 높아야 하지 않아요. 작가의 성격이 善化하고 美化하기 전에야 어찌 대중의 양심을 움직일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sup>43)</sup>

모운숙은 작가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시인의 길로 들어선 이상 인류와 사회를 위한 작품을 쓰기 위해선 교양과 양심이 높아야 함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민족과 국가, 그리고 시쓰기에 대한 모운숙의 이런 생각은 당대 민족주의자 춘원을 만나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광수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노래하는 모운숙을 시단에서는 보기 드문 존재로 격려했다.<sup>44)</sup> 민족과 국가를 위한 노래를 통해, 죽음을 불사하고 시를 쓰겠다는 모운숙 시인의 각오는 당대 문단에서 여성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광수는 당대 문단에서 조선민족의 마음과 조선의 땅을 안으려했던 여성 시인으로 모운숙을 평가하고 있다.

모운숙 시인의 시는 분명 당대 조선의 현실을 바탕으로 민족의 고통과 국권의 부재를 일깨운다.

임 계신 곳 향하여  
이 몸이 갑니다.  
검은 머리 풀어 허리에 매고  
불꺼진 조국의 제단에  
햇불을 켜 놓으려 달려 갑니다.

「검은 머리 풀어 전문

위의 작품에서 모운숙은 불 꺼진 제단, 즉 조국에 햇불을 켜 놓으려 달려가겠다고

42) 모운숙(1978), 117면.

43) 홍명희, 모운숙 양씨 문답록, 좌담 「이조문학 기타」, 『삼천리문학』 제 1집, 1938, 1.

44) 이광수, 「모운숙의 시집, 『빛나는 지역』, 서문, 박문서관, 1933.

말한다. 모운숙은 한결같이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강조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런 특성을 보이는 모운숙의 시가 당대의 주류적 경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1920년대 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1920년대의 시단은 일찍이 아비부재의 시대이며, 여성성이 이를 구원한 시대로 평가받았다.<sup>45)</sup> 남성 시인인 한용운, 김소월 등이 재현하는 여성화자와 님의 시학은 부재하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시를 통해 ‘궁핍한’ 시대 저항의 미학이 탄생한 것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그런데 1930년대 시단에서는 남성 시인이 노래하는, 조국으로 표상되는 ‘님’이 주요 시단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모운숙의 시가 ‘님’을 부르며 민족의 현실과 이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모운숙의 시는 작품의 주제상 한용운과 김소월의 뒤를 이으면서도 훨씬 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주인공을 내세우고 있다는

어떤 때에는 그는 분명히 ‘나이두’의 힘찬 리듬을 본받으려 하였다. 「조선의 딸」, 「빛나는 지역 안해의 소원」, 「리별 여름밤의 기원」 등에는 우렁찬 리듬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의 시집 속에서는 최상급에 놓일 시들이 아닐까 한다.<sup>46)</sup>

이런 점에서 김기림이 모운숙의 시가 인도의 여성 시인 ‘나이두’의 힘찬 리듬을 본받으려 한다며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모운숙의 작품이 환기시키는 저항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나이두는 인도의 여성 민족 운동가이며 시인으로 모운숙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다. 김기림 역시 감상성을 주로 비판하고 있지만 모운숙에게 최상급의 시들이란 ‘민족’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중심에 놓은 시작(詩作)이기에 그것이 시인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시세계가 아닌가 제안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1920년대에 남성 시인이 결핍과 구원의 상징으로 여성화자를

45) 김윤식, 「한국시의 여성편향」, 『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3, 445-457면.

46) 김기림, 毛允淑씨의 ‘리리시즘’ - 시집 「빛나는 地域」을 읽고, 《조선일보》, 1933, 10,29-30.

사용했었다면, 1930년대 전문적 여성 시인의 등장 이후 직접 여성의 목소리로 ‘님’을 노래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920년대의 ‘남성시인-여성화자-님의 시학’이 1930년대 ‘여성시인-여성화자-님의 시학’으로 계승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식민지 여성시인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자리에 피곤히 기대었을 때  
소리없이 그의 손은 내 가슴에 찾아와  
고달픈 내 혼에 속삭입니다  
<너는 왜 잠이 들지 못하느냐>고

해진 치마 보고 가난을 슬퍼할 때  
어디선지 그 얼굴은 가만히 나타나  
깨어진 창틈으로 속삭입니다  
<너는 조선의 딸이 아니냐>고

「조선의 딸」부분

모운숙의 작품에서 ‘나’는 부모의 딸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딸로 인식된다. 비유적인 언어보다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 작품은 ‘조선의 딸’로서의 시인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운숙은 주인공 여성을, 해진 치마를 보고, 가난함을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생각으로 피곤에 치친 존재로 그린다. 이런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식민지 시기 민족/국가에 대한 상상이 여성의 정체성과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좁혀 말하면 민족과 국가를 노래하는 것이 여성작가의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모운숙은 시인으로서 민족의 현실과 대중의 고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은 민족과 국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역사 현실과 문단에 어떤 책임을 다 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930년대 초 시단에서 모윤숙 시인은 분명 민족적 현실의 암울함과 국가의 부재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여성 주인공의 적극적인 행위를 상상함으로써 작품에서 저항의 메시지를 생산했다.

그는 1930년대 초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여성 주인공을 상상함으로써 작가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결인의 삶처럼 타의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여성의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는 근대의 계몽의식과 연결된 여성주의적 자각과 연결된다.<sup>47)</sup> 이런 의미에서 『빛나는 지역』(1933)의 세계는 여성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작가로서의 사명의식 등이 투영된 시집이다.

모윤숙의 초기시는 민족의식을 토대로 부재하는 상상의 국가(조선)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시쓰기를 통해 모윤숙은 여성시인으로서 정체성을 얻고자 했으며 그의 작품은 당대 주요 문단에서 배제했던 민족과 님의 노래를 통해 시의 한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여성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실천인으로서 작가의 소명 등을 강조하던 시인이었기에 친일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식민지 여성 지식인으로서 모윤숙은 제국 일본 권력의 대리자라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시인이 가진 시세계의 논리가 강력한 주권으로서의 남성을 상상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국가라는 권력과 맞물린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애초부터 국가로 상상되는 남성과의 위계질서를 따르며 그 논리에 포획된 여성상을 정립하고 있었기에 이상적 남성에게 보내는 민족주의적 사랑의 시 『렌의 애가』를 거쳐 강력한 주권인 일본 제국의 여성 시인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이다.<sup>48)</sup> 즉 모윤숙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아버지와 오빠’의 부재, 즉 국가의 부재는 그것을 소망하는, 남성 국가와 대비되는 여성 화자를 만든다.<sup>49)</sup> 이때 여성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47) 모윤숙(1978), 118면.

48) 김승구, 「모윤숙 시에 나타난 여성과 민족 관련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30호, 2006. 10.

49) 민족과 국가를 상상하는 수사학에는 성별 상징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민족의 의미가 강조될 경우 조국 앞에 어머니가 붙지만, 국가 주권의 상실은 아버지의 상실, 아버지의 부재로 표현된다. 일제 식민지 기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다. 임우경,

자신을 보호해줄 조선의 아버지, 즉 든든한 남성 주체를 희구하게 하고, 이 희구를 내면화하게 되는데, 식민지 여성의 경우, 국가가 없었으므로 이런 욕망은 더욱 강렬할 수 있다<sup>50)</sup>는 것이다.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모운숙 시세계의 논리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어 간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 조선 여성들의 친일은 식민지 여성의 여성주의적 자각,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욕망이 일본 제국의 국민화 과정을 통해 충족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1930년대 초 모운숙의 시에 나타나는 힘 있는 국권의 추구하고 계몽의 의지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고, 제국의 근대 논리에 포획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는 모운숙의 작품이 1930년대 초 문단에서 민족적 현실에 대한 자각과 저항의 의미로서의 실제적 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 모운숙, 감상주의, 감상성, 여성 시인, 국가, 민족, 민족주의, ‘님’의 시학, 식민지, 작가 정체성

---

식민지 여성과 민족/국가 상상,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태혜숙 외, 여이연, 2004, 50면.

50) 임우경(2004), 51-52면.

<참고 문헌>

- 권환, 「33년 문예평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중앙일보》, 1934, 1,14.
- 김기림, 「1933년의 시단의 회고와 전망」, 《조선일보》, 1933. 12.7-13.
- 김기림, 「毛允淑씨의 '리리시즘' - 시집 「빛나는 地域」을 읽고」, 《조선일보》, 1933, 10,29-30.
- 김기림, 「문예인의 새해 선언 - 씨클을 선명히 하자」, 《조선일보》, 1933.1.4.
- 김기림, 「포에시와 모더니티」, 『신동아』, 3권 7호, 1933. 7.
- 김기림, 「현대시의 肉感- 감상과 명량성에 대하여」, 『詩苑』, 1권 2호, 1935. 4
- 김기림, 「여류문인 편감 총평」 『신가정』, 2권 2호, 1934, 2
- 김승구, 「모운숙 시에 나타난 여성과 민족 관련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0호, 2006. 10.
- 김승식, 「심리학 상으로 본 여자」, 『신여성』, 1926, 4권 7호,
- 김용직, 『한국현대시인연구』, 서울대출판부, 2000.
- 김윤식, 「한국시의 여성편향」, 『근대한국문학연구』, 일지사, 1973.
-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 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 모운숙, 「어떻게 난 시인이 되었나」, 『신가정』, 1936.3.
- 모운숙, 『영운 모운숙 전집6』, 지소림, 1978.
- 박숙자, 「근대문학의 형성과 감정론」, 『어문연구』, 제 3호, 2006.
- 박용철, 「여류시단 총평」, 『신가정』, 1934.12.
- 박용철, 『시문학』 창간호, 편집후기, 1930.3.
- 박지영, 「1920년대 '책광고'를 통해서 본 베스트셀러의 운명」, 『대동문화연구』, 제 53집, 2006.
- 백철, 『조선 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7.
- 서준섭, 『한국모더니즘 문학연구』, 일지사, 1988.
- 성동학인, 「우리들은 어떤 소설을 읽을까」, 《동아일보》, 1928.2.11.
- 송영순, 『모운숙 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7.
-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 문단」, 『상허학보』 제13집, 2004. 8.

- 오세영 외, 『한국현대詩사』, 민음사, 2007.
- 이광수, 「모운숙의 시집, 『빛나는 지역』, 서문, 박문서관, 1933.
- 이석훈, 「문학소녀」, 『신여성』, 7권 5호, 1933. 5.
- 임우경, 「식민지 여성과 민족/국가 상상」,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태혜숙 외, 여이연, 2004.
- 임화, 「기교파와 조선시단」, 『중앙』, 1936. 2
- 임화, 「1933년 조선 문학의 제 경향과 전망」, 《조선일보》, 1934, 1.7.
- 정태용, 「모운숙론」, 『현대문학』, 1967, 5.
- 최정희, 「1933년도 여류문단 총평」, 『신가정』, 1934,12.
- 허혜정, 「모운숙의 초기시의 출처」 『현대문학의 연구』 33호, 2007.
- 홍명희, 모운숙 양씨 문답록, 좌담 「이조문학 기타」, 『삼천리문학』 제 1집, 1938.  
1.
- 리타 펠스키, 『근대성과 페미니즘』, 김영찬, 심진경 옮김, 거름, 1998.
- Pierre Bourdieu, 『예술의 규칙-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하태환 옮김, 동문선, 1999.

[Abstract]

## The field of poetry in the 1930s and a direction in female writers' poems:

Focusing on Yoonsook Mo's (1933) early work, *A Shiny Zone*

Kim Jinhee

The 1930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oetry, is when the modern poetics was established, via modernization of poetic techniques and broadening and deepening of thematic awareness. Yoonsook Mo, a female poet, started her career in this field of literary world. The status for female poets was hardly secured in the early 1930s. The appearance of Yoonsook Mo, with high praise of 'the one and only female poet Joseon has,' was a remarkable event in the poetical circles of the 1930s. However, the criticism on Mo has mainly concerned her pro-Japanese creations and activities in the late 1930s, until recently.

This paper investigates what import and implication Mo's works carry in the field of the contemporary literature. It looks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viewing her works in the early 1930s as preparation for pro-Japanese verses in the later years. It is an attempt not only to render proper evaluation to Mo's works which were composed prior to pro-Japanese activism, but to have a general understanding of her word of literature, as well.

The mainstream criticism on the works in that period was principally regarding Mo's works from a viewpoint of genderization of sentiments. The interests of the major literary critics in Yoonsook Mo *per se* were considerable, but they generally ended up in criticizing sentimentalism, which eventually drove female poets out of the center of the literary circles.

Despite the fact that the literary world was concentrating on sentimentalism and neglecting female writers who sang of nation and country, Mo created works of nation and country due to the combined influence by the familial environment with her father being an activist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 reinforced nationalism in association with the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 and her temperament, habitus, which was bound to have interests and participate in the reality. Considering that the subject of nation and country was mainly for male writers, these works of this female poet is deemed notable. The implication Mo's works are presenting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s noticeable in that she made the first social connection through poems by recognizing 'nim' (dear) as a nation in the social dimension, not in the individual dimension.

【Key words】 : Yoonsook Mo, sentimentalism, female poet, gender, country, nation, nationalism, poetics of 'nim,' colony, writer-identity

---

---

김진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HK 교수

120-750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11-1 진관 301호

전자우편 : jin\_heekim@ewha.ac.kr

---

---

이 논문은 2009년 2월 18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3월 12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